

원로 스님들에게 듣는다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지혜’

지혜 스님(조계종 원로회의 수석부의장)

1 힘이 험하다고 해서 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험든 것을 피하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더 험한 것에 봉착되는 것이 인과법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어떻게 험든 길을 잘 걸어가느냐 하는데 대한 대답입니다.

‘조고각하(照顧脚下)’ 즉 발아래를 살펴보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발 아래에 널려있는 허물들을 살피지 못하고 눈을 멀리로만 향하려고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외부적으로 가져가지 마세요. 남이 나를 위해서 쫓겨나기 위해 바란 다든지 주변 상황이 나를 위해서 변해주시기를 바라지 말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고 또 스스로 자신이 변해야 합니다. 이때 모든 문제가 자연히 해결됩니다. 잘 되면 자기 능력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라는 말은 어리석은 사람, 변명주의자들을 두고 생긴 말입니다.

2 불교는 자기의 본성, 본

데 순수한 의식집중이라는 면에서 효과적이지 못하고 특히 잘못된 의도선처럼 단순한 정신수양의 방법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의해야 합니다.

3 부처님께서 출가 수행자에게 사치를 금하고 사발염의를 하게 한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였습니다. 하나는 세속적 번뇌를 단절하기 위해서이며 또 하나는 다른 종교의 수행자와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산만한 마음을 방지하여 산란하지 않게 하는 목적입니다.

정신이 맑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늘 자신의 몸을 청결하고 규범이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범과 반성의 거울이 바로 계율입니다. 또 안이비설신(眼耳鼻舌身) 오근오도 대상을 관별하다가 온갖 시비를 불러 일으키기 쉽습니다. 계율은 이러한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부정확한 욕망과 망상을 단속하는 재직과도 같으며 또 넓은 강을 건널 때 필요한 뱃목과도 같은 것입니다.



보성 스님(조계종 전계대화상 ·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1 불교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일러 사바세계라 합니다. 사바를 굳이 우리말로 풀어본다면 인내(忍耐)란 뜻입니다. 탐(貪) 진(瞋) 치(痴) 삼독(三毒)과 오온(五蘊)으로 비롯되는 고통을 참고 살아야 한다는 뜻이죠.

사실 우리는 너무 인내심이 없었습니다. 어디가나 ‘빨리빨리’입니다. 식당에 가도 음식 시켜놓고 ‘빨리빨리’ 합니다. 외국인들이 한국말 가운데 먼저 배우는 것이 ‘빨리빨리’라고 하더군요.

성실과 기다림이 없다면 요즘 사람들은 투기에 눈을 돌리곤 합니다. 한번에 대박을 내겠다는 것인데,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따라서 대박이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빨리빨리’하다보니 ‘쉽게쉽게’ 살려고만 합니다. 부모를 모시지 않겠다는 풍조도 이러한 사고가 팽배하기 때문입니다.

옛 어른들은 산에 오를 때 꼭마르다고 물을 ‘벌컥벌컥’ 마시지 않았습니

다. 공부도 있어, 가장 유념해야 할 것은 ‘기분 내키는대로 하는 것입니다. 넘치지 않고 적당히 먹고, 자고, 생각하는 자세가 되었을 때 그때부터 수행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참선 염불을 하든 경전 한 구절을 읽든 골곧게 다가옵니다.

3 요즘, ‘어느 뇌성마비 환자가 스님의 가르침으로 오체투지 절을 하며 자신의 어려움을 이겨냈다’는 책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감명 받아 아침마다 108배를 한다고 합니다.

의사는 먼저 병의 원인을 알아야 병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 화가에게 있어 진정한 의사는 스님이었습니다. 이렇듯 수행에 앞서 기본적인 5계를 지키며 공부할 자세를 만들고 그때야 비로소 자신의 근기에 따라 수행법을 정하도록 하세요. 스님들이 참선에 앞서 스승에게 화두를 받는 것처럼 제가불자들도 근기에 따라 수행법을 정



수산 스님(조계종 원로회의 의원 ·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1 불자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마음이 집으로 살아야 합니다. 부처님 말씀 가운데 공업소생(供業所生)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이 짓고 같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같은 업을 지어 금생에 같이 모여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불자들은 이것을 염두에 두고 금생이든 다음 생이든 어려운 경제상황, 끊임없는 전쟁, 흉악한 범죄 등이 일어나는 혼탁한 세상에 처해 살더라도, 인내하며 원망하지 않고 참다운 부처님 정신으로 바른 마음, 바른 행동을 하며 먼저 내

자신부터 정화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잘 읽고 잘 먹고 잘 살고 싶겠지만 자기 자신의 분수에 맞게 해야 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본래로 그렇고 그런 중생세간 그대로 두고 영겁을 뛰어넘는 피안을 보세요. 행복은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

고 더움은 스스로 아는 것입니다. 탐진치 삼독을 멸한 참사람 회합에 중심을 두는 한, 근기에 맞추어 열별 주력기도 위빠사나 간화선 등 어느 수행법이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참사람을 참구해가는 그 중심을 잃지 않으려 합니다.

3 부처님은 열반에 드시기 직전에 ‘제로써 스승을 삼으라(以戒爲師)’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그 만큼 계율을 중시하셨던 것이며, 수행자를 바른 수행의 길로 안내하는 스승과 같이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현실에서 이 계법을 지키기 어렵다고 해서 그 계율을 고

쳐야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계를 지키기 어렵다고 바꾸는 것은 파계(破戒)입니다. 계정에 삼학에서도 계는 우리 수행자들의 중요한 규범이고 첫 출발점입니다. 옛말에 ‘옛 법 없애지 말고 새 법 내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승단의 수행과 화합은 계율을 지키려고 노력하



자기 발아래 허물을 먼저 보라

래 청정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공부입니다. 우리가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무한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중생계는 알고 보면 일순간에 지어지는 꿈과 같은 것입니다. 자신의 본래 청정한 그 마음자리로 돌아가 없으면 그 순간 중생계의 모든 존재들이 허망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팔만대장경이 다 그 길을 밝힌 지도이며, 역대 선지식들의 어록이 다 그 길을 찾아가는 나침반입니다.

마음을 밝히고 본래 청정한 자성을 깨닫고 더 이상 오욕과 칠정에 물들지 않으면 그 자리가 바로 부처의 자리입니다.

백척간두에서 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용맹스런 마음 없이는 부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선은 순수한 집중을 통해 마음의 산란을 가라앉게 하고 정신통일을 하는 수행법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존재의 실상을 깨달아 해탈을 얻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선의 방법으로 좌선을 택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근래 여러 가지 수행법이 등장하고 있는

2 우리는 지금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전쟁으로부터 치달아 문제해결을 일삼는 국제 사회의 소용돌이 속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는 지금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평화가 도래하지 못합니다. 한국인에게나 미국인에게나 제일 좋은 가르침은 불교입니다. 세상에는 진리의 가르침이 많이 있지만 부처님 팔만 사천 법문 가운데에 그 모든 진리가 다 들어 있습니다. 유물론과 유신론을 비롯한 온갖 명제들이 많았지만 인류 문화사를 다 수용해서 하나의 진리로 명확하게 풀이한 분이 부처님입니다. 천지 우주가 오직 하나의 생명이라는 부처님 가르침에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도리’를 모르고는, ‘내가 있고 네가 있고 상대적인 법이 있고, 또 이분법으로 나누어서 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살든 죽든 간에 불교의 진리가 마침내 이 세상을 다 덮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두를 하나로 보는 진리의 수행자들이 앞으로 모든 종교를 회통하게 될 것입니다.

‘빨리빨리’ ‘쉽게쉽게’ 이제 그만

말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 때는 먼저 술을 따서 씹습니다. 술을 씹으면 고온배도 잠재우고 갈증도 누그러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후에 적당한 물을 마시곤 했습니다. 세상은 순리에 따라 돌고 돌입니다. 이러한 자연을 직시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 수록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2 불자들 가운데 기도비만 내고 정작 본인인 기도에 참석하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돈으로 사겠다는 것인데,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지만 현실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자신을 망치고 불교를 망치는 일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쉽게 쉽게 살고자 하는 요즘 세상의 풍조입니다.

가정에서도 아이들만 원하면 바로바로 해주는 것도 문제입니다. 친독하니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습관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참고, 스스로 일을 하는 습이 필요한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쉽게 살려고만 하는 세상에는 ‘인내가 가장 큰 수행’입니다.

해 정진해야 합니다. 물론 그에 앞서 계율을 지키면서 인내하며 끝까지 해내겠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4 인류역사를 살펴보면 평화를 외치는 종교가 수많은 전쟁의 주범이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작금의 이라크전쟁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내 종교가 제일이다’는 아집과 중생심이 없어야 합니다.

불교가 가장 위대한 종교라고 하는 것은 ‘불교’라는 종교를 위해 어떤 전쟁도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티베트의 지도자 달라이 라마는 불교를 내세우지 않으며 세계평화를 말합니다. 그러기에 망명정부 이끌고 있으면서도 세계적인 지도자로 추앙받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6년간의 설산 고행으로 마음의 참 자유를 찾았습니다. 인내하고 성실하게 살 때 자유는 따라옵니다. 부처님, 하나님을 내세우지 않고 참다운 생활을 할 때 그 종교에 진심으로 귀의하기 마련입니다. 평화를 가장하고, 종교를 가장한 이들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지키기 어렵다고 계 바꾸면 파계

분들 마음속에 갖추어져 있습니다.

2 수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전제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회광반조(廻光反照)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왜 수행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현재 나의 마음 씀은 어떠한지를 한치의 편견도 없이 냉철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수행의 목적은 탐진치 삼독을 멸하고 참사람을 회복하는데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비의 실현에 두어야 합니다. 수행과 깨달음을 통해 무언가 큰 것을 얻었다는 생각은 털끝만큼도 두지 마세요. 진정한 참회를 통하여 탐진치의 마음, 욕망에 물든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때 여러분에게 바른 견해와 안목이 열릴 것입니다. 바른 안목으로 수행법을 잘 가려서 바른 수행의 길을 가야 합니다.

조계종은 전통적으로 간화선 수행을 중시합니다. 수행법에 대한 분별회론을 접어두고 실천수행을 해 보아야 합니다. 요즘은 수행에 대해 말만 많지 실천할 수하는 사람은 적은 것이 문제입니다. 차

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새로운 법을 지루할 수록 승단의 수행과 화합 풍토는 깨집니다. 명심하세요.

4 진정한 세계평화와 종교화합을 위해서는 종교의 존재목적은 다시 한번 돌아쳐 보고, 과연 참으로 각 종교가 종교 본래의 본분을 다하고 있는지 반성하는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종교인은 널리 모든 생명을 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종교만이 옳다고 해서 안됩니다. 잘못된 세상풍토를 바로잡고 세상 사람을 바른 길로 가도록 이끌려면, 모든 종교인들이 종교의 목적을 바로 이해하고 서로 화합하여 구현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박애와 불교의 자비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박애와 자비가 하나임을 바로 알고 합심해서 중생을 바른 길로 이끌어 가야 합니다.

종교인들은 언행일치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나와 남의, 내 종교와 남의 종교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분별의식에서 벗어나 박애와 자비의 실천행을 해 나갈 때 세계의 평화와 화합은 이룩됩니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10주년을 축하합니다

팔공산 은해사 제1195돌 개산대제

보살계 · 만등불사 대법회 안내

일시 : 불기 2548(2004)년 10월 24일(일)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법회 안내

- 23일 · 오후 3시 은해사 개산조 혜철국사와 역대조사 차례제 - 부도전
- 24일 · 오전 10시 지정보살 봉안식 및 사시예불
- 오전 11시 개산대제
- 정오 점심공양
- 오후 1시 보살계 수계식
- 오후 3시 30분 산사음악회 (술발)
- 오후 5시 저녁공양
- 오후 5시 30분 만등불사 점등식

■ 장 소 : 제 10교구 본사 팔공산 은해사 금강계단

■ 동참금 : 보살계 - 1인 2만원, 만등불사 - 1인 1등 1만원, 지정보살 봉안비 - 1만원

■ 문의 및 접수 : · 은해사 (054)335-3318 ~ 9 / FAX (054)335-0293 · 정불협 (02)741-9345 · 은해사 교구 각 말사

※ 은해사에서는 특별법회 및 정기법회일 (매월 음력 3일, 18일) 동대구 → 빈야월 → 아양지역으로 버스 운행합니다.

※ 행사 전날 쉼터 기도 아실 분은 미리 원주실로 연락 바랍니다.

불기 2548년 10월

三 師

전계대화상 包山慧印 (약전사회주)
교수·사리 樂山志安 (승가대학원장)
갈마야사리 金牙慧國 (남국선원장)

대한불교조계종 제 10교구본사 팔공산 은해사 경북 영천시 청통면 치일리 479 / www.eunhae-sa.org

8 한국불교 일각에서는 계율을 안 지키는 풍토가 한국불교를 병들게 하는 주 원 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일각에서는 시대에 맞는 계율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큰스님께서는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스님(조계종 원로회의 의원·황대선원 조실)

1 불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데 불자들이 오히려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별기는 닷 남을 벌고, 쓰기는 열 남을 씁니다. 기름 한 방울 없는 나라에서 자가 용 타고 지나치게 더운물을 평평 불어놓고 묵욕하니, 한국이 빗덩이에 앉아 있습니다.

수입이 열 남이면 석 냥은 쓰고, 석 냥은 저축하고, 석 냥은 보시하여 복을 지을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분에 따라 살 줄 아는 사람이 밝은 인간입니다.

요즘은 사내같은 사내도 없거니와, 선 덕 여왕에게 여자 가치를 물어보고 사는 여자가 없습니다. 자기 가치를 찾아 먹고 돌아볼 줄 아는 밝은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또 헛말 안하고 헛말 안하고 헛걸음을 안 걸어야 합니다. 신문도 새로 들려주고 새로 알려주고 새로 보 여주는 것입니다. 희망 있고 덕이 있고 복이 될 수 있는 말을 보여주는 언론



만에 도를 알아도 하나도 늦지 않습니다. 30년만에 도인(道人) 하나씩만 나와도 우리나라는 잘 살 것입니다.

도는 쉽게, 함부로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도 출가한지 6년 만에 도를 깨달았는데, 요즘은 입만 가지고 '마음이 부처다' 소리만 했지 도인은 없습니다. 참선법이 너무 흔하고 써서 도인은 눈 닦고 보려 해도 없는 것입니다. 30년도 노력하지 않고 도 닦는다고 앉아 있습니다.

해인사를 가도, 봉토사, 범어사를 가도 해인(海印)을 묻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봉토사인지 범어사인지 뜻을 알라는 이도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해 줘도 정신차리는 놈이 천명중 하나도 보기 어렵습니다.

8 부처님 같이 나온 지 삼천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러다보니 정법, 상법시대를 지나 말법시대까지 접어들었습니다. 계행 잘 지키고, 못 지키고 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석가 세계'가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4 저 멀리 십자군 전쟁에서부터 최근 이라크 전쟁까지 종교가 전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진정한 세계평화를 이루고 종교화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승산 스님(조계종 원로회의 의원·화계사 조실)

1 화(和)와 복(福)은 스스로 받고 스스로 다스리는 것이니, 고난중에도 마음을 비우는 사람은 평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복이라고 다 좋은가요. 지나치면 부족함만 못하다는 말도 있는데 복도 너무 많으면 복받느라 걱정이 많아집니다.

그러니 오유지족(吾唯知足)이라. 제 본수를 알아 욕심을 내려놓고 쉬 것이며 내 앞에 닦친 이 일. 이 순간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 자체로서 삶은 이미 바른 길로 들어선 것이 됩니다.

내려놓고 쉬라고 해서 결코 머물러 버려서는 안 됩니다. 자기 능력에 따라 그릇 크기에 맞게 최대한 노력해야 합니다.

2 선(禪)을 닦는데도 그 사람의 마음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분종일 선사의 말을 빌면 선에도 외도선이니 범부선이니 소승선이니 하는게 있고, 중도실상을 관하는 대승선, 최상승선인 여래정정선 등이 있

는(白樂天이 조과(鳥窠) 선사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불법입니까?" 조과 선사의 대답이 간단합니다. "나쁜 짓 하지 않고 착한 일 많이 하고 그 마음을 깨끗이 쓰면 그것이 불법이다(諸惡莫作 衆善奉行 自淨其意 足諸佛數)."

그러자 백낙천이 껄껄 웃으면서 "그중이야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 아닙니까?" 하고 묘웃음을 했습니다. 그러나 백낙천이 뭘 말라도 한참을 뜯어본 것만 같습니다. 불교는 이치를 아는데 있는게 아니라 실천하는데 있습니다. 만약 계율을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시대에 맞는지 안 맞는지 하는 얘기가 사실이라면 그런 말하기에 앞서 조과 선사가 대답한 뜻부터 바로 알라고 알려주고 싶습니다.

다만 5계, 10계 라도 묵습 길고 실천부터 하는게 신불자(信佛者)의 도리입니다. 계율의 개정을 말



원로 스님들에게 듣는다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지혜'

혜초 스님(태고종 종정)

1 부처님께서 <증일아함경>에서 말씀하시길 "보살은 항상 평등심으로써 보시하여 오로지 한마음으로 중생들을 생각하되 '중생은 법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이니, 법이 있으면 구제를 얻고, 법이 없으면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생 즉 국민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은 무엇보다도 경제 살리기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경제제민(經世濟民)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정치권을 들여다보면 경제 살리기 보다는 자신들이 속한 정파의 이해에 따라 현 시국을 바라보는 일 등에 더 많은 신경을 쓰는 듯한 인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등장한 현안마다 대립하여 자칫 국론분열 양상으로까지 치닫되고 있습니다.

국민들 또한 오늘의 어려운 경제현실을 정치권과 사회 지도층에 물리려는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스스로가 역사창조의 주인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희망이 가득한 미래를 내 것으로 만들

과 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걸기로 이어지는 수행방법 제대로 알고 자기에게 맞는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대중생활을 통한 철저한 자기수행과 선지식의 지도가 바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8 스님은 고행을 찾아서 하는 자세와 각오로 수행을 해야 불교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고 또 사회와 대중을 이끌어갈 자격도 주어집니다. 다만 그것이 고통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두타행(頭陀行)을 하는 것이 바로 계율을 지키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 "계율을 스승으로 삼아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계율의 현실화는 수천년 이래의 관심사이지만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 아난다에게 작고 사소한 계는 버려도 좋다고 한 정신을 살려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정성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방의 울사들과 현장의 전법사



도가 뭔지 제대로 묻고 배워라

이 되어 합니다. 희망 있는 국가, 열이 살아있는 백성이 되어 합니다. 지금 정신 못 차리면 왕창 무너질 것입니다. 나라와 백성을 위해 국토를 아끼고 국민을 아끼는 정치가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대통령도 한마디를 하면 전 인류의 뼈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는 한마디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부일언 중천금(丈夫一言重千金)' 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 던지면 몇 십년을 두고두고 새겨지는 금언(金言)을 남겨야 합니다.

2 나는 30대부터 제방의 큰스님들을 찾아다니며 도(道)가 뭔지 묻고 다녔습니다. 도가 뭔지도 가르쳐 주지 않고 도 닦으란 놈도 고안 놓이지만, 도가 뭔지도 모르고 닦는다고 하는 놈도 바보 자식입니다. 시적이 반입니다. 도를 닦기 전에 도가 뭔지 제대로 묻고 배우는 게 앞서야 합니다.

옛날에는 구도자(求道者)라 했습니다. 도를 구하는 자라 했지 닦는 자가 아닙니다. 도를 구하고 구해서 10년, 20년, 30년

묵묵 치고 불공하는 것이 불교가 아닙니다. 3백년 전 우리나라에는 불공하는 법이 없었고, 부처는 원래 밝기에 불을 켜는 법도 없었습니다. 지금 절에서 하는 일이 전부 기복과 미신입니다.

사람은 '사람 인(人)' 자라도 알고 가정을 끌어가야 하며, 종교인은 종(宗)자, 교(敎)자, 믿을 신(信)자를 알고 종교를 믿어야 합니다.

살 때 살 줄 알고 살아야 죽을 때 죽을 줄 알고 죽습니다.

4 옛날에는 물질 싸움이 많이 일어났는데 앞으로 부딪치게 될 종교싸움과 정신 싸움이 더 될 것입니다. 물질로 아무리 대항해도 정신이 죽어 있어서 안됩니다.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지만 정신이 썩어있기 때문에 가만히 놔둬도 스스로 죽는 줄도 모르고 죽는 것입니다. 외국서 수입된 특약방부제 친 식료품도 죽는지 모르고 먹지 않습니까? 돈 주고 사약 사먹는 세상입니다.

7살 이전의 어린이처럼 깨끗한 상태에서 다시 법을 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종교 바로알면 다들 명분 없어

니다. 또 불교공부를 하는 과정으로 보면 간경문에 열불문 그리고 진언문도 있고 참선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을 가는데도 호미로 쟁기로 또는 소를 끌어 가는 등 여러 방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모두 방편이 되기에 문 제삼을 일으키는 아닙니다.

다만 사람마다 근기가 다르니 외도선이 아닌 다음에야 '이거다' 라고 한가지로 고집할 수는 없지만 이왕에 대자유인이 되어 걸림없이 살아가고자 한다면 최상승의 참선문을 통해 마음을 깨닫도록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세상이 점점 영악해지다 보니 수행도 깨달음도 똥가 요령껏, 남보다 빠른 지름길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그런 것을 좋아하는게 요즘의 세태인 모양이나 깨달음엔 지름길도 없고 특별한 요령도 없습니다.

그저 가고 오고 없고 닦고 간에 언제 어느 곳에서나 마음자리를 살피다가면 됩니다.

8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지만 옛날에 백

하는 이들은 풀이켜 그 말을 하는 마음자리부터 살필 일입니다.

4 네 신, 내 신... 신의 이름을 앞세워 싸움을 벌이는 성향이 없지 않으니 그래서 '종교를 아뢰' 이라고 구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이 먼저 사람의 도리를 알고 땅의 도리를 알고 나서야 하늘 길을 묻는 게 순서이겠거늘 가르침을 잘못 받아들여서 그만 인간의 길은 제쳐두고 서로들 하늘 일을 잘 안다고 나대니 전쟁이 날 수 밖에 없지요.

기독교의 하나님이란 분은 텅 비고 깨끗한 자리라. 그속에서 삼라만상이 탄생했다는 의미이니 불교의 가르침과 크게 어긋나지 않습니다. 유교도 도교도 하는 가르침도 다 마음을 잘 지키고 자연스럽 게 쓰는 것이니 불교와도 또 어긋나지 않거늘 어디 다루고 싸울 명분이 있겠습니까.

모두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으면 그 아발로 세계가 한 꽃송이 이거늘 그걸 모 르니 뽀라르고 싸우는 것입니다.

산은 푸르고 물은 흘러간다.

어떻게 수행하든 나 바로 보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닌 우리라는 공동체 정신에 입각하여 지도자는 좋은 정책대안을 개발해서 제시하고 국민은 따르는 화합적인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 불교는 화합된 무리라는 뜻에서 승가라고 하는 데 여섯 가지를 공경하고 화합하라는 가르침인 <육학경(六和敬)>에서 견해(見)와 이익(利)을 같이 하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2 기분을 바로 하고 목표를 바로 해서 나를 제대로 아는 수행을 하면 위빠사나, 간화선이든, 염불선이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나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부처님은 몸(身)과 감각(受)과 마음(心)과 현상(法)을 꼼꼼히 살피라는 사념처관(四念處觀)을 제시하셨는데 그것을 더욱 더 발전시킨 것이 간화선(禪話禪)입니다.

초기의 묵묵히 그리고 꼼꼼히 바라보는 수행법이 달마 대사의 소림굴에서의 면벽좌선, 육조스님과 무상, 마조, 태고 스님 등으로 이어지는 생각도 없고, 수행도 없고 평상의 마음과 생활에서 부처의 참된 모습을 찾아내는 무수(無修)의 수행

들이 모여서 결집하듯이 중의(衆議)를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킨다 자랑 말고 못지킨다 비방하지 않는 것이 청정한 계율을 지키는 수행자의 자세입니다.

4 세상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개인이 평화로워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바로서야 합니다. 나의 잘못된 판단인 5취운(五聚蘊)을 헐어버린 곳에는 나니 너니하는 구분의식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종교가 세계평화의 견인차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내 것이라고 하는 의식인 상(相)이 없어진 자리에 여러 종교의 성지와 수행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공동의 관심사를 논의하고 서로 다른 수행 및 기도 방법을 같이 해 보는 공동체 수련의 마당을 여는 것이 필요합니다. 종교 상호간에 기분이 되는 뿌리조직이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 토론하고, 기도하고, 수련하는 진정한 의미의 수행교류공동체의 건설이 이루어진다면 종교를 매개체로 한 세계평화는 한걸음 성큼 다가갈 것이 분명합니다.

Advertisement for Dongshan Buddhist University celebrating the 10th anniversary of the Modern Buddhist News. It lists various departments like Buddhist Studies, Buddhist Psychology, Buddhist Law, and Buddhist Education. The address is Seoul, Songro-gu, Susong-dong 46-20, Dongshan Buddhist Temple (Sasilbunwahwan). Contact: (02)732-1206~8, http://www.dongsanbud.net